

위생관리 개념 정립이 필요

□ 정리/김동진 기자



중계·부회장 위생관리 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본회가 주최하고 가축위생연구소, 농림수산부가 각각 주관, 후원한 중계·부회장 최고 경영자 연찬회 및 실천결의대회가 지난 2월 10일 오후2시 중계·부회 경영자 및 관련인사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찬회는 중계·부회의 위생관리가 양계산업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아리 가격의 진폭이

전례없이 큰데따라 육추 또는 육성률이 낮아 국제 경쟁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중론이 나오고 있어 중계·부회장의 위생관리 중요성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 되었다.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소장의 중계장 및 부회장 위생관리 대책방안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연찬회는 오봉국 박사가 좌장을 맡았는데 계열과에 근무

하는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경영자들과 양계질병중 생산성에 직결된 추백리 등 주요질병에 관해서 종합토론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에 앞서 본회 신홍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중계·부회 부분은 오히려 퇴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자리를 계기로 당면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산업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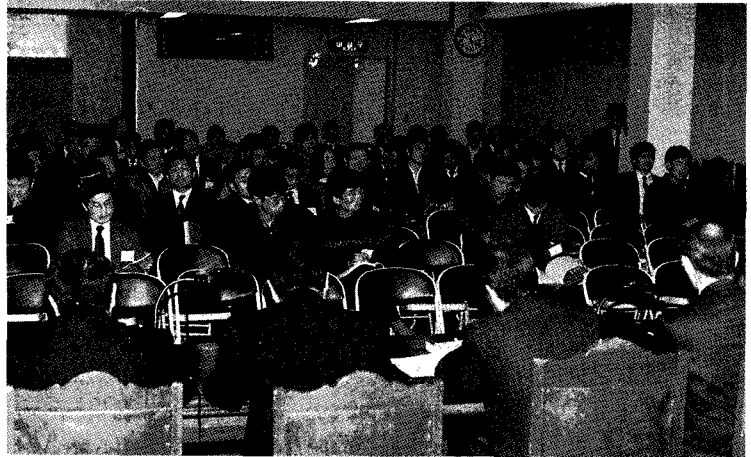
좌장을 맡은 오봉국 박사는 사료,약품,기자재 등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외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양계산업의 존립을 유지하기 힘들다 전제하고 생산성 저하가 왜 생기는가를 조기에 밝혀 우수하고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하는것

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종계장 및 부화장 위생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박근식 소장은 19년전 종계·부화 최고 경영자와 실무 경영자간의 워크숍이 있던 후로 처음 열리는 자리라 감회가 깊지만 그 이후로 큰 진보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설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종계·부화 위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래전부터 법이나 규정을 정해 행정부와 민간업체들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과 각종 질병의 정화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추백리 진단액이나 마이코플라즈마 진단액의 보급 측면에서 조차 혈청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 생산자들이 예방대책 소홀로 야기되는 질병을 막기 위해 항생물질 사용에 의한 유해물질 잔류가 위생상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나 협회차원에서 질병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



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종계·부화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곧바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경영자측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진단액 뿐 아닌 다른 백신들도 국내개발을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에 주력해 줄 것을 제시했으며 당장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수수 조절을 통하여 적정수수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는 한농장에 다계군 사육, 계사시설의 낙후, 사양관리의 미숙, 인공수정시 위생상태 불량 등이 현 종계장의 문제점이라 전제하면서 경영자들

의 자체 위생관리에 대한 주의가 가장 필연적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92년 잔류독성과 '93년 해외가축 전염병과를 신설하여 꾸준한 연구를 통해 자체 백신 개발 등 질병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종계·부화업 경영자들은 질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시간을 연장하였으나 결의문 채택 및 실천대책을 위한 방안 모색은 일단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치키로 하하는데 의견을 모아 위임키로 하였다. **양계**